

불기 2568년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 계획안

1. 사업 배경

- 2023년 12월 말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은 '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흡수통일 기회만을 노리는 이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착오'라며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고착됐다고 발표함.
- 새해 첫 한미연합 전투사격훈련을 시작으로 최전방을 포함한 전 전선과 3면의 바다에서 포격 훈련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도 지난 1월 5일 서해상으로 192발의 해상사격을 함. 이에 해병 6여단 연평부대가 400여 발의 대응발사를 하고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음.
- 북한은 남한을 적대국으로 표현하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징벌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음. 이에 현 정부도 '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'이라며 즉(시), 강(력하게), 끝(까지)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, 남과 북이 거세게 강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음.
-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이며, 많은 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해외 학자들까지도 전쟁 발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. 전쟁으로 가지 않기 위한 남과 북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.

2. 행사 취지

- 불안한 안보환경에서 군사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종교계 또한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. 전쟁을 통해서만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리고 남북이 다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.
- 전쟁을 막기 위한 부처님의 헌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불자들이 평화와 화합을 위한 부처님의 실천행을 등불삼아 남북이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로 나아가길 바라는 발원을 모으고자 함.
- 궁극적으로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종단과 불교계가 평화 통일 문제에서의 역할을 선도, 평화의식 확산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3. 행사 개요(안)

- 행사명 : 불기 2568년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
- 일 시 : 불기 2568년 3월 5일(화) 오후 4시~6시
- 장 소 : 조계사 대웅전 마당
- 주 최 :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
- 인 원 : 100명

4. 행사 내용(안)

- 사회 - 민주본 사무총장 덕유스님

- 주요 식순
 - 삼귀의, 반야심경
 - 인사말 : 민주본 본부장 태호스님
 - 격려사 : 총무원장 스님(총무부장 스님 대독)
 - 연대사 :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, 포교사단, 대불청, 대불련
 - 전쟁 희생자 위령 천도
 - 전쟁반대 평화기원 다라니기도(천수경, 다라니 7독)
 - 평화통일발원문 낭독
 - 연등행렬 : 일주문 - 공평사거리 - 두산위브 앞길 - 조계사 뒷길 - 해탈문 - 조계사
 - 사홍서원

- 참석 대상 : 중앙중무기관 및 산하기관 스님·재가 중무원, 포교사단 및 포교신도단체(대불청, 대불련 등), 주요 사찰 신도, 민주본 회원 등

- 비고 사항
 - 불교계를 대표하는 평화통일기원법회로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진행
 - 한국전쟁 발발 75년인 2025년 법회는 외부 장소도 고려

※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